

## 教授 業績評價의 본질과 방법

李 星 鎬

(延世大 教育學科)

### 1. 問題의 提起

#### 1) 教授業績評價의 必要性과 目的

지금부터 약 반세기 전인 1942년에 미국의 Logan Wilson은 그의 명저 *The Academic Man*에서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어떠한 대학에서든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곧 교수의 責務遂行에 대한 적절한 評價이다”라고 실화하였다.<sup>1)</sup> 그후, 대학교수 업적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 대학사회에서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

그 까닭은 우선 첫째로 교수 개개인의 업적은 그 대학의 質 또는 秀越性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개개 교수의 업적은 모여서 한 學科의 업적을 이루고, 개개 학과의 업적은 集綴되어 그 대학의 업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수들의 責務遂行에 대한 대학 내·외의 압력이 가중되는 데서 교수 업적의 평가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교수들은 진실로 그들

의 專門的 責務, 흔히 교육·연구·봉사로 구분되는 세 가지 기본 책무에 얼마나 성실한가에 대한 대학 내·외의 집요한 추궁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 안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일종의 消費者保護主義(consumerism) 운동으로 나타난다. 대학 밖에서는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나 企業, 각종 사회 기관들로부터 교수들의 責務性에 대한 평가적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미국 대학에서는 어떠한 교수들이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예컨대 A.E. Bayer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교수 중 1/3 이상이 연구나 학술적 집필에 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3/5 이상은 단 한편의 논문도, 단 한편의 책도 저술하지 못했다.<sup>2)</sup> 그리고 E.C. Ladd, Jr.에 따르면, 미국의 4년제 대학교수 5,000명을 표집 조사한 결과, 약 25%는 ‘아무 것도 출판한 적이 없는 교수’들로 나타났다.<sup>3)</sup> 이렇듯 많은 교수들이 기본 책무에 소홀하고 있음을 볼 때, 學校行政陣의

1) L. Wilson, *The Academic Ma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42).

2) A.E. Bayer, *Teaching Faculty in Academe: 1972~'73*, ACE Research Reports No. 2(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73).

3) E.C. Ladd, Jr., “The Work Experience of American College Professors: Some Data and an Argument”, *Current Issues in Higher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1979).

입장에서는 이들을 통어하기 위한 방략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방략의 최선의 하나가 곧 업적 평가라는 인식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 대학은 예로부터 自律을 생명선으로 하여 존재해 왔다. 그러나 대학이 그러한 자율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업적을 스스로 세우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은 결코 행동 그 자체의 자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 대한 自責으로부터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교수 업적에 대한 대학사회 공동체에 의한 自律的 評價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특히 人口環境과 財政與件의 변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줄기 시작한 대학 진학자의 數,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전공 분야에 따라 기존의 교수를 줄여야 할 만큼 남아 돌아가는 교수의 數, 또한 그렇지 못하는 데서 오는 누적되는 財政的 압박, 제한된 教授職을 향한 치열한 경쟁 등과 같은 일련의 유기적 환경 변화가 교수들의 신규 임용, 승진, 정년 보장을 위한 업적 평가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교수의 업적 평가가 결코 교수들을 구속하거나 學問的 自由를 억제하기 위한 기제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根本 目的은 교수들의 책무 수행의 動機를 강화하고 補償하여 교수 개인의 生産性을 높이며, 나아가 대학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그 質的 水準을 개선하고 고양시키는 데 있다. 연구를 게을리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소홀한 교수들을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가능성을 저니고 있는 다수 교수들의 책무 수행을 助長하기 위한 것이다.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 업적 성취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 요인을 구명하려고 노력한 연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테

면, H. Zuckerman의 연구(1977)<sup>4)</sup>, J.R. Cole과 S. Cole의 연구(1973)<sup>5)</sup>, 그리고 M.F. Fox의 연구(1980)<sup>6)</sup>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교수 업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환류는 다른 두 가지 영향 요인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본 요인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다른 두 가지 영향 요인이란 개인적 특성(능력, 경력, 인성, 연령)과 환경적 특성(출신 대학원, 소속 대학과 소속 학과의 명성,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대학의 분위기)이다.

이렇듯 교수들의 責務遂行 동기를 강화·보장·조장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수 업적 평가는 결국 교수들의 승진, 정년 보장과 같은 人事上的 補償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安息年이나 각종 형태의 賞(예컨대, 학술상), 각종 研究費 支援 등의 보상 체계와도 교수 업적 평가는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즉, 업적이 탁월한 교수에게는 위에 적은 것과 같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책무 수행의 동기를 더욱 강화하고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는 위에 적은 것과 같은 人事上·行政上의 의사 결정을 위한 合理的 根據로서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수 업적 평가의 또다른 중요한 목적은 한 大學의, 한 學科의 學術的 質(academic quality)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물론 한 大學, 한 學科의 학술적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나에 대한 正答은 없다. 그것은 다분히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테면, 학생의 양과 질, 교육과정의 폭과 깊이, 제원의 확보와 활용, 도서관 등 각종 교육 시설, 행정 체제, 역사와 전통, 지리적 환경, 심리 사회적 환경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수의 양과 질이 그 어느 다른 요인

4) H. Zuckerman, *Scientific Elite: Nobel Laureates in the United States*(New York: The Free Press, 1977).

5) J.R. Cole & S. Cole, *Social Stratification in Science*(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3).

6) M.F. Fox, "Publication Productivity Among Scientists", *Social Studies of Science*, 13 : 2 (1983), pp. 285~305.

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수의 質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결국 교수의 여러 가지 책무, 즉 교육·연구·봉사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는가? 세 가지 기본 책무 중에서도 교수 개인 간에, 대학 간에 상호 비교가 가능한 연구 업적 성취에 대한 평가 자료가 결국 교수의 질을 판별하고, 나아가서는 그 대학, 그 학과의 學術的 質을 판별하는 하나의 좋은 준거가 될 수 있다.

## 2) 業績評價에 대한 教授의 葛藤

교수 업적을 평가한다고 할 때, 교수들의 葛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대체로 교수 업적 평가 그 자체에 대한 거부에서부터 업적 평가의 내용과 방법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로 사회의 모든 部面과 모든 下位體制에서 최고의 지성이고 權利와 責任의 自律을 최고의 생명으로 여기는 교수 자신들의 업적을 누군가가 평가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떠한 計量的인 基準을 설정해 놓고, 그것에 기초하여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産業體에서 投入→過程→生産으로 이어지는 기계적 절차에서의 效能性 極大化를 기하기 위한 方略인 바, 그것을 교수들의 업적 평가에 적용한다는 것에 부정적이다. 게다가 아직도 傳統的 學藝精神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한국 대학 풍토에서는 교수들의 업적을 서구 대학의 경우처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화하는 데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클 수도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둘째로 교수 업적을 평가한다고 할 때, 교수들이 갖는 의문은 어떠한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이냐이다. 흔히 교수의 責務를 대학의 사명과 관련하여 教育·研究·奉仕로 규정하는 바, 이들 세 가지 責務의 업적 모두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교수 업적은 위의 세 가지 책무상의 업적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갈등은 그 각각의 책무상 업적의 범위를 어디까지

로 정할 것이냐에서 비롯된다. 또한 논리적으로 세 가지 책무 수행 모두가 업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교육과 연구 책무 수행만이 업적 평가의 범주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 제한 그 자체에 대하여 갈등을 겪는 교수들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오늘날 급변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교수들에 대한 複數的 役割期待(multiple role expectations)가 대학 내·외에서 확산되고 있을 때, 교육과 연구 업적만을 교수 업적 평가의 범주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로 이론적으로는 교육과 연구 업적을 교수 업적 평가의 타당한 범주로 설정한다 해도 이것에 관하여 교수들의 內的 葛藤(intrapersonal conflict)은 매우 뿌리 깊게 복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教授職에 처음 채용되었을 때, 교수들에게 기본적으로 기대되는 책무는 “우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연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채택된 이론(espoused theory)과 업적 평가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이론(theory in use)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수 업적 평가가 주로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만으로 시행되어 왔을 뿐, 교육 업적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교육보다는 연구 책무 수행 내지는 연구 업적 제고에만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데 內面的 葛藤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고 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교수들로서는 연구 위주의 업적 평가에 대하여 더 큰 불만을 토로한다.

넷째로 교수 업적 평가로 인한 교수 상호 간의 갈등(interpersonal conflict)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것은 競爭心理 속에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評價過程에서의 기준 설정이나 절차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評價者로서 동료 교수가 선정되었을 때, 평가 교수와 피평가 교수 간의 갈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하게 진전되기도 한다.

다섯째로 교수 업적 평가에 관한 교수들의 갈

7) C.F. Conrad & R.T. Blackburn, "Program Quality in Higher Education: A Review and Critique of Literature and Research" in J.C. Smart(ed.),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gathon Press, 1985).

등 가운데 또다른 측면은 이념적인 갈등(ideological conflict)이다. 이는 앞서 처음에 제기하였듯이 업적 평가 그 자체의 必要性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또는 이념상의 대립일 수도 있고, 평가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觀點과 視點의 대립일 수도 있다. 이념적인 갈등은 또한 교수 집단과 行政集團 간에도 나타난다. 행정적에서는 교수들의 업적을 단순히 '연구 업적'만으로 생각하고, 연구 업적은 무조건 '출판된 업적'만으로 단순화시켜서 엄정하게 평가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행정적의 그러한 사고는 교수의 모든 학술 활동이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법하는 오류라고 반박한다.<sup>8)</sup> 이러한 집단 간의 이념 대립은 결국 大學이라고 하는 복잡한 政治的 體制內에서의 집단 간의 힘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상대를 견제하고 통어하는 수단으로 교수 업적 평가를 이용하려는 데서 야기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수 업적 평가는 결코 모든 대학, 모든 專攻分野, 모든 教授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데도, 단순히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일괄하여 실시되는 데서 교수들은 심한 갈등을 경험한다. 예컨대 순수 자연과학, 문학계통의 인문과학, 음악학과 같은 예술과학의 경우 '研究'의 의미와 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의 양태는 크게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不利益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쪽의 교수들이 겪는 갈등은 매우 클 것이다. 교수 업적 평가는 본질적으로 多面的 性格을 지닌다. 즉, 研究業績 하나만 놓고 생각해 도 무엇을 연구로 보느냐에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결과물을 어떠한 비중으로 산정할 것이냐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범주는 매우 폭 넓은 것이다.

### 3) 教授業績의 基本內容

교수 업적을 평가한다고 할 때 그 평가 대상이 되는 기본 내용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교수의 遂行義務의 규명과 맥을 같이 한다. 교수의 수행 책무에 대한 규명과 분류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미국 대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sup>9)</sup>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교수 업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실제로 활용되는 내용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에 대한 모범적인 연구는 1978년과 1983년 두번에 걸쳐 P. Seldin 이 미국의 4년제 人文大學 학장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다.<sup>10)</sup> 그는 교수의 책무 수행과 관련된 업적 평가 대상 내용을 모두 1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교수 업적 평가에서 얼마나 반영되어야 할 요소인가를 평정하였는 바, 그 결과는 뒤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보면, 첫째로 수업 활동에 대하여는 99%의 응답자들이 교수의 업적 평가에 기본 요소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응하였다. 둘째로 연구·창작 활동에 대하여는 1983년의 경우 33%의 응답자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요소라고 반응하였다. 어떻게 보편이 33%는 매우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조사는 研究中心 종합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고 學部中心의 人文單科大學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임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대학 및 공공 봉사의 경우, 대학내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는 53%, 공공봉사에 대하여는 17%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요소라고 반응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 활동에 대하여는 약 25%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요소라고 반응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요소 이외에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큼 높은 반응을 나타낸 요소는 '현 직급에서의 재직 기간'과 '개인적 숙성'이다. 현 직급에서의 재직 기간은 대

8) D. Needham, "Improving Faculty Evaluation and Reward System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Winter 1982, pp. 6~18.

9) 교수의 수행 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李星鎬, 「大學教育課程論: 學點과 課題」(서울: 연세대출판부, 1987), 제 5장을 참조하기 바람.

10) P. Seldin, *Changing Practices in Faculty Evaluation*(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 1984).

〈표 1〉 교수 업적 평가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요소' 라고 반응한 응답자 수의 백분비(%)

교수 업적의 내용	'78년 조사 N=680	'83년 조사 N=616
교실 수업	98.8	98.7
대학원생의 연구 지도	2.2	3.7
우수 학부생의 연구 지도	2.5	1.9
연구	24.5	33.4
출판	19.0	29.2
공공봉사	13.7	17.4
정부 및 기업체에 대한 상담	1.2	2.4
전문 단체(학회)에서의 활동	17.0	24.5
학생 상담 지도	66.7	61.7
대학내 각종 위원회 활동	48.8	52.6
현 직급에서의 재직 기간	49.9	46.8
취업 알선	3.1	1.8
개인적 숙성	38.4	28.6

체로 승진 심사를 위한 요건을 의미하는 바, 이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숙성'은 교수의 성실도, 학교에 대한 충성도, 동료 교수와의 인간관계, 심리적 태세 등을 판별하는 것인 바, 이 역시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에서도 승진 또는 재임용의 과정에서 형식적이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상의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할 때, 교수 업적 평가에서 가장 중핵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教育·研究·奉仕 그리고 専門活動의 4 영역이다. 本稿에서는 특히 教育과 研究에 관련된 業績評價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2. 教育業績의 評價

### 1) 몇 가지 그릇된 認識

교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教育 또는 教授(teaching) 활동에 대한 업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데는 사람들이 모두 이론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주로 연구 업적, 주로 교수 업적이 평가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그릇된 인식에서 연유한다.

첫째로 연구 업적은 그런대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면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교육 업적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이다. 즉, 교육 업적 평가는 그 방법이 아직도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인 데 비하여, 연구 업적 평가에는 量化가 가능한 보다 진보된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교육 업적 평가에 대한 과학적 방법과 절차가 연구 업적 평가의 경우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룬 교수는 결국 훌륭한 교수자(teacher)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다. 결국 대학에서 교수들에게는 연구가 생명이고, 그러한 연구를 잘 해내는 교수는 곧 교실에서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 많은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연구의 생산성과 교실 수업에서의 효율성 간에는 아무런 相關(correlation)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11)</sup>

셋째로 연구 업적은 걸음으로 드러나는, 즉 공개된 결과물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더 쉽고, 더 타당하고, 더 신뢰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교실에서의 교육 업적은 닫혀진 門 안에서 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걸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평가가 어렵고, 덜 타당하고, 덜 신뢰롭다는 맹목적인 인습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업적에서도 얼마든지 걸음으로 표출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며, 평가에서도 타당하고 신뢰로운 많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게 열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끝으로 교육 업적 평가에서는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사실 교육 업적 평가에서의 [중핵적인 요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는 교수의 연구 업적 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특정한 요소들에 대한 절대적인 합의를 구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나 수업 평가 요

11) J.A. Centra, *Research Productivity and Teaching Effectiveness*(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1981).

소에 대한 절대적인 합의란 있을 수 없다. 수업 평가는 결국 종합적이면서도 교과목의 성격이나 관련 여건에 따라 개별적일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2) 敎育業績評價의 內容과 方法

### ① 內 容

교수 활동(teaching activity) 업적 평가에서 평가의 자료가 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動的인 資料로서 '교실내 수업 활동' 그 자체이다. 이는 교실 내에서 교수가 행하는 모든 형태의 교수 활동을 의미한다. 교실내 수업 활동에서의 평가 대상이 되는 가장 중핵적인 요소는 敎授 方法이다.

다음으로 교수의 가르치는 활동에 관련된 업적 평가의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는 靜的인 것들이 있다. 앞서의 動的인 자료들이 軟性資料(soft data)라고 한다면, 이는 硬性資料(hard data)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예컨대 敎授計劃書(syllabus), 각종 敎授資料(敎科書 및 수업 준비 노트,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유인물 등),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과제와 시험의 내용 및 방법, 그리고 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學業成就度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硬性資料의 범주에 속한다. 물론 이들 각각의 자료가 교수들의 교육 업적 평가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교수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가르쳤느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폭 넓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② 方 法

교수들의 가르치는 능력 또는 가르치는 데 따른 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은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누가 평가를 실시하느냐에 따른 평가 방법이다. 세 부류의 평가자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은 교수 자신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교수들의 自律能力에 대한 공인과 신뢰가 확보되어 있을 때, 교수들에 의한 自體評價(self-evaluation)는 교수 업적 평가의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다. 다음은 동료 교수에 의한 평가 방법이다. 즉, 교수들이 상호 간에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료 교수(비록 연령이나 직급상 선임교수라고 하더라도)에 의한 평가는 평가 교수나 피평가 교수 모두가 심리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가르치는 일에 관련된 모든 것이 교수 개개인의 독특한 私의 過程이라고 할 때, 그것을 제3자가 평가한다는 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수가 많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수의 교육 업적 평가에서 동원되는 세 번째 부류의 평가자는 학생들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뒤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둘째는 평가의 資料源에 의해서 구분되는 평가 방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직접 방문·관찰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나타난 文獻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動的 측면, 즉 교실 내에서의 실제 수업은 관찰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靜的 측면은 주로 文獻들을 통하여 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방식 모두에서 객관적인 評定尺이 사용되는 것은 공통적이다. 더불어 記述的 評價도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는 評價時期에 따른 평가 방법의 구분이다. 교수 업적 평가의 目的이 단순히 인사상의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의 업적 성취의 동기를 강화하고 改善을 촉진시키는 데 더 큰 뜻이 있다고 한다면, 評價時期上의 평가 방법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된다. 하나는 形成評價이고, 다른 하나는 總合評價이다. 형성 평가는 결국 그 결과를 최종 의사 결정 자료로서는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동기 강화와 개선의 목적에만 사용하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인사상의 최종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라고 할 때는 총합평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평가의 횟수에 관한 문제이다. 수업 능력을 평가한다고 할 때, 그것은 특정 시기에 특정 교과목의 수업 한 가지만을 갖고 一回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複數的인 方法으로 이루

어겨야 한다. 즉, 몇 년에 걸쳐 그 교수에 의해서 실시된 여러 교과목의 수업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연구물에 대한 평가만으로, 한 학기 동안의 특정 연구 업적만으로 그 교수의 연구 업적 평가를 할 수 없듯이 교육 업적도 특정한 하나의 수업 또는 특정한 한 학기 동안의 교육 업적만으로 그 교수의 교육 업적을 평가·판단할 수는 없다.

### ③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

학생들이 교수의 수업 효율성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미국 대학의 경우 교수들의 수업 능력 또는 교육 업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하나의 資料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서 서서 그 문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은 참으로 어떠한 수업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최적인 수업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수업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교육 이론 그 자체에 대하여 無知하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느낌 또는 의견이나 지각에 기초하여, 그리고 자신의 학습 경험에 비추어 자신들의 반응을 표현하기 쉽다. 특히 교수들은 개개인의 '가르치는 일'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감정만을 표현함으로써 교수의 수업 능력 전체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에 의한 수업 평가는 결국 교수 개개인의 개인적 인기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학생들에 부과되는 과제의 양이나 시험의 곤란도, 또는 부여되는 성적 등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 의한 수업 평가는 妥當度·信賴度를 결여하기 쉽다는 점에서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를 부정

적으로 생각하는 최대의 합리적 근거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반하여 거꾸로 학생에 의한 교수들의 수업 능력 평가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이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에 의한 수업 평가가 상당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구명한다. 예컨대, W.J. McKeachie<sup>12)</sup>나 J.U. Overall과 H.W. Marsh<sup>13)</sup>, 그리고 L.A. Braskamp와 그의 동료들<sup>14)</sup>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는 물론 많은 先行研究 결과들을 분석하여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가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문제는 학생들에 의한 교수의 수업 평가를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실시하느냐가 관건적 요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몇 가지를 예시하면, 우선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하나의 학급, 즉 하나의 수업에서만 실시된 학생들에 의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수업과 여러 학급의 수업에서 실시된 학생들의 수업 평가의 누계적 통계치를 활용하여야만 그들에 의한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나타난 계량적인 통계 수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되는 척도의 내용은 수업의 다양한 여러 측면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강 학생 거의 모두가 참여한 평가 결과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생들에 의한 교수의 수업 평가 절차의 표준화도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거듭 강조해 둘 것은 교수의 교육 업적, 특히 수업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학생들에 의한 수업 평가 결과만이 유일한 資料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12) W.J. McKeachie, "Student Ratings of Faculty: A Reprise", *Academe*, 65(1979), pp. 384~397.

13) J.U. Overall & H.W. Marsh, "Students' Evaluations of Teaching: An Update", *Research Currents*,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Bulletin, December 1982, pp. 9~12.

14) L.A. Braskamp & Others, *Guidebook of Evaluating Teaching* (Urbana: Office of Instructional Resources, Univ. of Illinois, 1983), p. 15.

### 3. 研究業績의 評價

#### 1) 研究活動의 範圍와 業績의 類型

교수의 연구 업적을 평가한다고 할 때,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研究活動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이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 아래 평가 대상이 되는 研究活動의 결과물로는 어떠한 것이 포함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研究活動의 범주를 새로운 知識의 生産에 국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좀더 확대하여 學術的 活動(scholarship or scholarly activity)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대체로 研究中心 대학에서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협의의 규정이다. 그러나 점차 확대되어 가는 교수에 대한 다양한 역할 기대는 교수의 연구 업적을 학술적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성향이 많은 대학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연구 업적을 평가한다고 할 때, 그 '연구'라는 범주 속에 어떠한 것까지 포함시켜야 되느냐 또는 포함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여 한 가지 원칙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그것은 결국 각 대학이 지향하는 이념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專攻分野의 성격에 따라 한 대학 안에서도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좀더 넓은 의미로 연구 활동의 범주를 설정해 놓고, 포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 업적을 예거 하하고자 한다. 이는 곧 연구 업적 평가의 원칙을 세우려는 각 대학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뜻이 있다. 연구 업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에는 모두 여섯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출판된 저작물이다. 여기에는 우선 각종 저서(교과서, 학술 연구서, 번역서, 편저서 등)가 포함되고, 공인된 출판사에 의하여 출판된 저서들의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는 각종의 공인된 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학술 전문지에 게재된 논문, 서평, 비평 등이 포함된다. 그리

고 앞서의 공인된 출판사에 의하여 출판된 저서 속에 게재된 하나의 독립된 章(book chapter)도 포함된다. 대체로 연구 활동의 범주를 매우 엄격하게 또는 협소하게 규정하는 대학에서는 이러한 첫번째 부류의 연구 업적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출판은 되지 않았으나 인쇄되어 공인된 저작물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특정한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수행된 연구 보고서가 해당된다. 대체로 이러한 경우 보고서는 제한 부수만 인쇄되고,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배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비를 받지 않고서도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이 연구를 수행한 다음 그것을 自費로 인쇄하여 배포하고 발표하는 바, 이러한 유형의 업적도 이 부류에 속한다. 학술 연구 업적의 엄정성과 질 관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부류의 업적을 그 質이 떨어지고 자신있는 出版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한다.

셋째는 作品의 형태로 제작되는 연구물이다. 예컨대 音樂이나 美術, 건축, 의상 또는 體育과 같은 각종 예술 분야에서 창작되는 작품이 그렇다. 또 語文學의 경우에도 作品으로 발표되는 研究物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비디오 作品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해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넷째는 구두로 표현되는 연구 업적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전형적인 예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등에서 구두로 발표되는 연구 업적이다. 물론 그것이 글로써 사전에 준비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앞서의 두번째 유형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글로써 준비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발표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연구 업적에는 교도의 학술성이 개재되어 있는 토론회나 세미나에서의 사회 또는 기록을 담당할 경우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sup>15)</sup>

다섯째는 文書형태로 나타나는 연구 업적이다. 이를테면 매우 심도있는 研究計劃書의 作成이 그

15) W.M. Leonard II and R.L. Schmitt, "An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eeting Index of Department Quality", *American Sociologist*, 9: 1(1974), pp.40~43.



렇다. 또한 특정한 학술 저서나 연구 논문(학위 논문은 제외)의 심사보고서와 같은 것이다.

끝으로 포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업적이다. 예컨대, 學會나 어느 단체로부터 수여받는 學術賞, 論文賞, 著述賞과 같은 경우 또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研究課題의 數와 규모는 교수들의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 活用되는 또다른 주요 資料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2) 研究業績評價의 方法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지극히 원시적이고 진형적인 방법은 단순히 출판된 저서나 논문의 數를 헤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단순한 量의 算定만으로는 多面的이고 복잡한 研究業績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計量的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質的 方法이다.

### ① 計量的 評價方法

연구 업적의 계량적인 평가는 종래의 단순한 數를 헤아리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比重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법(weighted measures)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 부여 평가 방법 연구는 특히 '60년대 중반 이후 '70년대 초에 걸쳐 미국의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우선 여기에서는 저서와 학술지 게재 논문 간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의견보다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J.G. Manis는 당시 사회과학

<표 2> 저서와 학술지 게재 논문 간의 비중

연 구 자	연구 년도	저서	학술지 게재 논문
J.G. Manis <sup>16)</sup>	'51	18	1
D. Crane <sup>17)</sup>	'65	4	1
A.M. Cartter <sup>18)</sup>	'66	6	1
M.A. Straus & D.J. Radel <sup>19)</sup>	'67	6	1
W.M. Stallings & S. Singhal <sup>20)</sup>	'70	5	1
E.T. Lightfield <sup>21)</sup>	'71	3	1

의 저서들을 분석하여 1권의 저서는 대체로 18개 쪽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고, 저서는 학술지 게재 논문에 비하여 18배를 산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 Crane은 정치학·심리학·생물학의 3개 분야를 검토한 다음, 저서 1권은 4편의 학술지 게재 논문과 맞먹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A.M. Cartter는 5종의 주요 정치학 분야 학술지를 검토한 다음, 1권의 저서는 6편의 학술지 논문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M.A. Straus와 D.J. Radel은 사회학 분야에서는 1권의 저서가 *American Sociological Review*나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에 게재된 6편의 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W.M. Stallings와 S. Singhal은 특별한 기준없이 1권의 저서는 5편의 학술지 논문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E.T. Lightfield는 대부분의 사회학 분야 저서들은 약 300면으로 되어 있는 바, 1편의 학술지 논문은 저서의 100면 정도로 계산해서 1권의 저서는 3편의 논문과 같은 것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생각하여야 할 점은 저서를 편저서, 교과서, 이론연구서 등으로 구분할 때, 이를 학

- 16) J.G. Manis, "Some Academic Influences upon Publication Productivity", *Social Forces*, 29 : 3(1951), pp. 267~272.
- 17) D. Crane, "Scientists at Major and Minor Universities: A Study of Productivity and Recogn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 5(1965), pp. 699~714.
- 18) A.M. Cartter, *An Assessment of Quality in Graduate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66).
- 19) M.A. Straus and D.J. Radel, "Eminence, Productivity, and Power of Sociologists in Various Regions", *American Sociologist*, 4 : 1(1967), pp. 1~4.
- 20) W.M. Stallings & S. Singhal, "Some Observation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 Productivity and Student Evaluation of Courses and Teaching", *American Sociologist*, 5 : 2(1970), pp. 141~143.
- 21) E.T. Lightfield, "Output and Recognition of Sociologists", *American Sociologists*, 6 : 2(1971), pp. 128~133.

〈표 3〉 편저서·교과서·이론연구서·학술지 게재 논문 간의 비중

연구자	연구년도	편저서	교과서	이론연구서	학술지 게재 논문
N.D. Glenn & W. Villemez <sup>22)</sup>	'70	10	15	30	4~10
D.D. Knudsen & T.R. Vaughan <sup>23)</sup>	'69	2	3	6	1~2
A.M. Cartter <sup>24)</sup>	'66	2	3	6	1

술지 게재 논문과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산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참고로 〈표 3〉에 대표적인 세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여기에서 보면, 저서 가운데서는 이론 연구서가 편저서에 대하여 갖는 비중은 3 배이고, 교과서에 대하여 갖는 비중은 2 배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 연구서가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하여 갖는 비중은 낮게는 3 배, 높게는 6~7 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計量的 比重評價方法에서는 비중 산출의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우선 학술지의 질적인 수준 또는 명성이나 중요성을 기준으로 삼아 비중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Glenn 과 Villemez 는 사회학과의 상위적 교수들로 하여금 그 학술지가 학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는 중요성을 평가하게 한 다음, 우수한 학술지와 수준 낮은 학술지를 선별하여 비중을 달리하였다.<sup>25)</sup> Knudsen 과 Vaughan 은 미국 사회학계에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학술지, 즉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AS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AJS), 그리고 *Social Forces*(SF)를 놓고,

그 학술지의 질적 수준에 따라 ASR 에 실린 2 편의 연구 노트, SF 에 실린 2 편의 논문은 ASR 에 게재된 1 편의 논문과 같은 것으로, 또 AJS 에 게재된 1 편의 논문은 ASR 에 게재된 논문의 2/3 와 같은 것으로, 그리고 ASR 에서 서평을 받은 이론 연구서는 ASR 에 게재된 3 편의 논문과 같은 것으로 매우 복잡하게 그 비중을 산정하였다.<sup>26)</sup> 그런가 하면 T.M. Nelson 등은 사회과학 학술지의 질을 판별하기 위하여 미국 65 개 대학, 캐나다 19 개 대학의 사회과학 분야 학과장들에게 학술지의 우열을 평가하게 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비중을 산정하기도 하였다.<sup>27)</sup> 또한 조금은 색다르게 J.C. Smart 는 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느냐를 따져서 학술지의 우열을 정한 다음, 비중을 산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8)</sup> 학술지의 질적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 학술지가 '심사받은 논문'만을 게재하느냐 아니면 '심사없이' 그냥 게재하느냐를 따져서 심사받은 논문만을 게재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더 큰 비중을 두기도 한다.

둘째는 저서의 경우, 그것이 原著述이나 아니냐를 따져서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D. Crane 은 이론 연구서, 교과서, 연구 보고서 등은 原著述로 간주하였다. 편저서, 번역서 및 실현실 매뉴얼과 같은 저서는 副次的 著述로 돌리고는 원저술에 한하여 1 개 저서에 4 편의 학술지 게재 논문과 같은 비중을 부과한 것을 주장하였다.<sup>29)</sup>

셋째는 저서든 학술지 게재 논문이든 그것의 量的 길이(面數)를 기준으로 삼아 比重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예컨대, A.W.

22) N.D. Glenn & W. Villemez, "The Productivity of Sociologists at 45 American Universities", *American Sociologist*, 5 : 8(1970), pp.244~251.

23) D.D. Knudsen & T.R. Vaughan, "A Re-evaluation of the Rankings of Sociology Departments in the Carter Report", *American Sociologist*, 4 : 1(1969), pp.12~19.

24) A.M. Cartter, *Op. Cit.*

25) N.D. Glenn & W. Villemez, *Op. Cit.*

26) D.D. Knudsen & T.R. Vaughan, *Op. Cit.*

27) T.M.Nelson & Others, "Ratings of Scholarly Journals by Chairpersons in the Social Scienc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9 : 4(1983), pp.469~497.

28) J.C. Smart, "Stability of Education Journal Characteristics: 1977~1980",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9 : 2(1983), pp.285~293.

29) D. Crane, *Op. Cit.*

Niemi, Jr.<sup>30)</sup>, P.E. Graves 등<sup>31)</sup>은 面數의 양을 표준화시킨 다음, 길이를 측정하여 저서와 학술지의 비중을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質的 評價方法

학술 연구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질적인 평가 방법은 결국 업적의 量을 측정·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업적의 質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평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 분야의 상위 적급 교수나 학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의 학술 논문의 우수성을 판별·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저서나 논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인정받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여 그 학술 연구 업적의 질을 평가하려고 하는 접근이다. 그러한 '인정'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 의한 인용(citation)이나 참고(reference)로 나타난다. 즉, 다른 사람이 그 교수의 저서나 논문을 얼마나 참고하고 인용하였느냐가 그 교수의 연구 업적의 질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세계에서 학술 논문을 작성할 때 타인의 업적을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것이 하나의 제도 또는 인습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이다.<sup>32)</sup> '61년에 E. Garfield는 '科學情報機構(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SCI)'라는 것을 만들어 우선 '자연과학 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을 제작하였고 곧이어 '73년에는 '사회과학 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78년에는 '인문과학 인용색인(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을 제작하였다. 현재 SCI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7,000여 종의 학술지를 망라하여 인용색인표를 작성하고 있다.<sup>33)</sup> 이러한 SCI에서 다루어지는 학술지의 인용 색인표의 검색을 통하여 특정 교수의 저서나 논문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지를 계량적

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 학술 연구 업적의 또 다른 질적 평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 색인을 통한 질적인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SCI에 등재되는 7,000종의 학술지가 꼭 학술 세계의 모든 대표적인 학술지를 전부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한국어'로 간행되는 우수한 학술지들은 그러한 SCI 목록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SCI의 색인표만을 갖고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의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교수가 제 아무리 우수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도, 그러한 저서나 논문이 모든 관련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그러한 논문이 있는 줄 몰라서 참고·인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때, 그의 논문이 단순히 얼마나 많은 다른 논문에서 인용되었는가를 계량적으로 헤아려서 그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인용 색인에 의해서 학술 연구 업적을 평가할 때 또다른 문제는 共著일 경우, 대체로 첫번째로 기술되는 사람의 이름만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제2, 제3의 저자 등등 그 다음의 저자들은 인용 색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첫번째 저자 이외에 공저자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둔다.

## 3) 研究業績評價의 몇 가지 問題點

이상에서 살펴 본 것에 기초하여 교수의 학술 연구 업적을 평가한다고 할 때, 결국 그 주 대상이 되는 것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즉, 연구 중심(대학원 중심) 대학과 교육 중심(학부 중심) 대학에서의 학술 연구 업적의 범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또한 같은 유형의 학술 연구 업적이라 하더라도

30) A.W. Niemi, Jr., "Journal Publication Performance During 1970~1974: The Relative Output of Southern Economics Departments", *Southern Economic Journal*, 42: 1(1975), pp. 97~106.

31) P.E. Graves, et al., "Economics Department Rankings: Research Incentives, Constraints, and 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72: 5(1982), pp. 1134~1141.

32) E. Garfield, *Citation Indexing: Its Theory and Applic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ies* (New York: Wiley, 1979).

33) E. Garfield, "Current Comments", *Current Contents: Social & Behavioral Sciences*, 44(1985), p. 3.

도 상호 간에 비중은 달라야만 할 것이다. 즉, 저서와 논문 간의 비중, 저서과 하더라도 저서 유형 간의 비중은 연구·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저서든 논문이든 모두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하고, 다만 저자가 단독 저술이나 아니면 2인 이상의 공저이냐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고에서는 논의된 미국 대학에서의 비중 부여 방식은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발전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 권의 책을 저술하는 것과 한 필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학술적으로 더 가치있느냐 함은 확일적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특히, 그것은 전공 분야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앞서 논의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대체로 논문보다는 저서에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는 바, L.L. Hargens는 그것을 설명하기를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교수들이 논문을 쓰기보다는 저서 출판을 선호하는 까닭이며 그 전공 분야의 규범이나 사회화 과정, 지식의 조직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34)</sup> 그러나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한 권의 책을 저술하는 일보다는 하나의 연구 주제를 놓고 오랜 기간에 걸쳐 수 차례 실험을 거듭한 끝에, 비록 길이는 길지 않아도 그 결과를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음을 본다. 이때 그 논문은 어쩌면 사회과학에서 학자들에 의해 집필되는 한 권의 저서와 같은 비중의 인정을 받을 만큼의 가치있는 학술 연구 업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학술 연구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비중 평가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기준의 적절성·타당성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준의 타당성 여부는 각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밝혀 둔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교수의 연구 업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업적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값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의 대학에서처럼 모든 것을 1년 단위로 산정할 때, 교수들은 1년 동안 양적으로 얼마만큼의 연구 업적을 성취해야만 되겠는가, 그저 현행과 같이 1~2편으로 정해 놓으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승진을 위한 인사 자료로 연구 업적을 평가한다고 할 때, 대체로 그가 현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의 모든 연구 업적이 평가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할 때, 양적으로는 얼마만큼의 업적을 이루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컨대, 그 대학, 그 직급 수준에서의 또는 그 전공 분야 교수들의 연간 평균 연구 업적을 산출하여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교수의 연구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또다른 문제는 倫理적인 문제이다. 이를테면 어떤 교수가 국내의 학술 논문이든 외국 학술지의 논문이든, 그 가운데 몇 편을 임의로 뽑아서 그냥 그대로 복사·재본하여 자신의 편지로 출판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연구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원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그 학술지를 간행하는 기관이나 출판사의 허락도 받지 않은 가운데 그냥 외국 학자들의 논문을 몇 편 뽑아서 버젓이 자신의 英語 編著로 내놓았을 때, 그 倫理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는가?

윤리적인 문제의 또다른 예는 하나의 論文을 학술지에 발표한 다음, 그 내용을 크게 발전시키지 않고 거의 그대로 제목만 바꾸어서 다른 학술지 또는 다른 형태로 발표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重植하여 연구 업적으로 산정해 주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러한 것을 연구 업적으로 二重 제출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 倫理성을 우리는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사실이 非倫理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二重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행동이 非倫理적인 것이다.

34) L.L. Hargens, *Patterns of Scientific Research: A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in Three Scientific Fields*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75).

윤리적인 문제로서 한 가지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단순히 ‘출판된 저작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몇 사람이 인쇄소를 통하여 自費를 들여서 한정된 부수를 만들어 내는, 금조된 1회용(그후에는 재속 이어지지 못하는) 學術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창간호만 나오고 더이상 나오지 않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뜻한다. 비록 창간호 후에 계속되는 학술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학술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게재된 논문을 인정하는 데는 보다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리라고 본다.

학술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또다른 차원의 문제는 결국 그것을 누가 심사·평가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어떤 사람이 참으로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연구 업적의 질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학과 내의 동료 교수인가? 아니면 타대학, 타기관의 교수에게 의뢰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 평가자를 선정하여야 하겠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심각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 아무리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술 연구 업적을 평가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학술 연구 업적 평가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끝으로 급속히 진전되는 첨단정보 통신과학의 발전은 앞으로 학술 연구 업적의 증거 형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제와 같이 ‘종이(paper)’에 인쇄되어 출판되는 연구물만이 학술 연구 업적을 증거로 제시하는 데 있어 유일한 수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가오는 21 세기에는 지식의 생산과 확산이 ‘종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전자학술지(electronic journal)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의 정보통신 과학자들은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방식의 출판을 학술 세계에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해보게 된다. 그러한 경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술 연구 업적 평가의 범주와 기준 등은 좀더 포괄적·진보적 방식으로 개선·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맺는 말

대학에서의 교수 업적 평가의 요구는 이제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대학 내·외에서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대학의 기능 수행에서 責務性(accountability)을 강조하려는 대학 내·외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결국 대학 기능 수행의 선도적 집단이 교수들이라고 할 때, 대학 기능 수행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는 교수 역할 수행의 책무성을 의미하고, 그럼으로써 대학에 대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교수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로 귀결된다. 어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대학이 그 존재의 합리적 근거를 내세우려면 그 스스로 역할 수행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곧 교수들의 업적 평가가 앞으로 대학사회에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정착될 것임을 예언해 준다.

뿐만 아니라 교수 업적 평가는 결과적으로 교수 자신들에게 職業的 安定(job security)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교수들이 이제는 그냥 오랜 기간 대학에 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상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졌다. 그들이 그만큼 대학사회에 기여하였다는 실증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대내·외 압력과 의문으로부터도 자신들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단순히 몇 년의 기간만 채었다고 해서 정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업적을 스스로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

교수는 혼자서 일하는 自由職業人이 아니다. 교수는 대학이라는 기관에, 학생이라는 奉仕對象集團에, 그리고 學問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責務에 특별히 귀속되어 있다. 그들은 그러한 귀속 기관, 대상 그리고 責務에 대한 성실한 충성을 요구받음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의 강도와 내용은 언제나 그가 귀속되어 있는 기관으로부터,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학문의 세계로부터 평가받게 되어 있다. 교수들은 自律을 생명으로 여기는 바, 이에 교수들은 그러한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自律的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수 업적에 대한 평가가 必然的이라고 할 때, 그것이

대학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그러한 교수 업적 평가의 필연성·당위성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과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 대학교수들의 고전적·전통적 믿음, 즉 교수는 최고의 知性인 바 그들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교수 서로 간에도 학문 세계가 크게 다른데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기꺼이 평가를 받으려는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더불어 평가를 주관하고 시행하는 행정진들의 교수 업적 평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교수 업적 평가는 결코 교수들을 통어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人事上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인사상의 역제를 가하기 위한 구실을 찾아내기 위해 교수업적 평가를 수단으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 교수 업적 평가는 근본적으로 교수 업적 성취의 동기를 강화해 주는 것이고, 업적을 성취하지 못한 교수들을 질책하기에 앞서 업적을 성취해 온 많은 교수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행정자들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 업적 평가의 관점이 또한 분명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 그저 어느 교수가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하였느냐, 얼마나 양적으로 많은 업적을 성취하였느냐 하는 공적(merit) 평가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공적이 결국 그 대학(기관)에, 그 학생들에게, 그 학문 분야에 얼마나 가치있는 것이냐를 평가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적이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치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을 필요로 하지만,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가치 있는' 기여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교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또다른 조건은 결국 그 방법과 절차

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대한 준비이다. 교수 업적 평가는 교수 업적 그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어쩔 수 없이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느냐를 셈하는 식의 평가, 그저 동료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형식적으로 그 질을 심사·평가받는 식의 절차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우선은 교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즉 평가의 資料源이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과 절차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구명되고 모든 교수들에게 널리 공개되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 교수와 피평가 교수 모두 그러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평가의 體系性·綜合性·公開性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수 업적 평가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끝으로 교수 업적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公正性·倫理性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평가는 엄격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한다. 더욱이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과정에 최선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평가 교수나 피평가 교수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업적 평가는 결코 획일적일 수 없음을 지적해 둔다. 결국 어느 대학에든, 어느 전공 분야에든, 어느 교수에든 똑같이 적용하는 획일적·기계적인 잣대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것은 대학(기관)의 특성, 전공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평가의 융통성·개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제도이어야 한다. 평가의 방법과 절차가 제 아무리 이상적으로 만들어져도 그것이 대학사회에서 행동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의미를 갖기 어렵다. 평가는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